

젠더 관점의 위험성평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정여진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운영위원

ILO는 2013년 ‘성인지적(gender-sensitive)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성별에 따라 경험하는 노동조건과 위험 요인이 다르기에 이 차이를 인정해야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U-OSHA 역시 여성이 주로 하는 일을 ‘덜 위험하다’라고 간주하는 편견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안전보건 정책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그 결과 “여성의 일은 위험하지 않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젠더 관점의 위험성평가가 필요한 이유

우리 사회에는 ‘표준 노동자’라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자리잡고 있다. 이 표준은 대체로 남성, 이성애자, 비장애인, 주류 민족, 청장년층을 상정한다. 현실에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소수임에도 설비, 보호구, 작업 기준, 업무 설계 등 많은 요소가 이 ‘표준 노동자’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게 되고, 안전과 건강 문제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여성 노동자들은 신체적 차이를 존중받지 못한다. 키나 몸무게, 해부학적 구조 등 형태적인 차이와, 물질대사 능력이나 체온 조절 능력 등 생리적인 차이가 여성/남성 사이에 존재한다. 비장애 남성의 몸을 기준으로 한 장비와 보호구만 일터에 존재하면 ‘나머지’ 노동자들은 그만큼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유해물질 노출 기준이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면 여성에게 위험할 수 있다. 심리적인 차이도 있다.

장시간 노동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며, 밤늦게 혼자 야근할 때의 심리적 부담 역시 여성과 남성이 같지 않을 수 있다.

노동 경험의 차이도 있다. 현존하는 성별분업 구도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노동 경험을 하게 되므로, 노출되는 유해·위험 요인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중 여성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반복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환 등은 그 위험이 뒤늦게 인식되었다.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서 오는 위험도 있다. 일례로 여성 승무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복장 규정이 있다. 족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유사 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굵 높은 구두 대신에 운동화를 신자는 캠페인이 작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벌어졌다.

이러니 사업주가 일터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그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인 위험성평가에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산안 당국이나 노총 등에서 성평등과 다양성의 관점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젠더 관점 위험성평가를 독려하고 있다. 이 경우, 물리적, 화학적 환경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와 같은 무형의 노동환경도 위험성평가 대상이 된다. 젠더 기반 폭력의 존재나 조직 분위기가 소수자에게 우호적인지 평가하는 것이다. 영국 노총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에는 ‘성희롱을 포함한 괴롭힘’이 포함되고, 독일 연방산업안전보건청(BAuA)의 ‘위험성평가 핸드북 : 심리적 요소들’에서도 각종 차별의 가능성을 찾아 평가하도록 한다.

젠더 관점 위험성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들

그런데 젠더 관점 위험성평가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갖가지 논리가 있다. 우선 개인별 차이만을 존중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보호구나 장비가 비장애인 남성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다는 예를 들면, 남성 중에도 치수가 맞지 않아 고생하는 사람이 많으며 이는 단지 개인의 차이 문제라는 답이 돌아온다. 이들은 개인차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의 실재를 애써 보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소위 전문가들의 연구 방법론에도 반영되어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양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재생산됐다. 여기서 개인이 놓인 구조적 조건과 권력관계는 개인의 변수로 치환되거나 분석의 배경으로 밀려난다. 이 같은 인식론적 한계는 사회적 현상을 자율적인 개인의 특성과 역량의 문제로 이해하는 틀과 연결된다.

일부 ‘진보적’ 전문가들 역시 ‘객관성’과 ‘측정 가능성’이라는 학문적 규범 속에서 이런 방법론적 전제를 성찰하지 못한 채 수용하기도 한다. 성별이나 인종, 장애, 계급의 사회적

의미가 소거되고 단지 개인의 특징 중 하나로 처리되면, 집단 간 관계란 단지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할 때나 등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집단 사이의 권력이다.

둘째, 당장 사람이 죽고 치명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문제인 판국에 한가로운 발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고’만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해로운 결과가 지연되어 나타날수록, 위험·유해 요인이 익숙한 것일수록 사람들은 위험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복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과 급식 노동자의 폐암도 최근에서야 주목받은 이유가 이것일 수 있다. 또한 상대적 소수라고 해도 일터에서 사고로 죽는 이들 중에 여성 노동자들이 있으며 그 맥락은 남성과 다를 수 있다. 이럴 때 오히려 전통적인 ‘사망 사고’만을 강조하는 것은 중대재해나 일터 안전이 다양한 일터의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강화하여, 중대재해 지속에 기여할 수도 있다.

셋째, 현장의 일거리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소리도 있다. 지금도 위험성 평가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는 것이다. 번지수가 틀린 걱정이다. 오히려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젠더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까지 아울러, 현장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젠더 알리지’ 극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사실 비판자들은 그저 ‘젠더’ 관점이라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다. ‘젠더 관점의 위험성 평가’라면서 성소수자, 고령 노동자, 장애 노동자, 이주 노동자는 왜 언급하느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다양성 관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시스젠더 여성들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을지도 모른다. ‘젠더’ 관점에 대한 과민반응은 여러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서 발견된다. 이데올로기적 감염력은 집단과 정체성을 가리지 않는다. 젠더를 불문하고, 성찰의 결과로 통찰과 감수성이 얻어질 뿐이다. 젠더 관점의 위험성평가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